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정현을 익산시장, 풍부한 지역 인프라로 최적지 부각 교육·연구 보장 등 상생안 내놓고 각 기관 협조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를 신속히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정 시장은 전북대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유치하며 별도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유치하는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수의대와 관련학과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를 보장하는 상생안을 내놓으며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를 위해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현을 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익산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최적의 지역임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익산시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고 질병관리청으로 이관 시 기존 연구 기능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물과 사람 간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기초 연구 보장 및 전북대 수의대와 관련학과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가 보장되도록 전북도와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유치하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주변 부지에 전북대, 원광대와 연계해 도내 보건 의료 바이오벤처 등의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들어 향후 진단키트,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K-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중복투자를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신

속하게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정부가 추구하는 최단 시간·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

익산시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동물 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BL-3)을 보유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국내 최대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기관인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가 구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익산시가 감염병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들을 보유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최적지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정보 인지 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5월에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를 제안하고 전북도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전북도, 익산시, 전북연구원이 주최한 Post-코로나19,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 유치 정책협력 세미나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전북대·원광대 전문인력을 활용하면 익산이 국가대위 감염병 연구의 최적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달에는 전북대 총장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장과 회의 를 통해 전북대 요구사항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며 “감염병 연구 인프라가 풍부한 익산시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속하게 유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속히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산시 ‘대표 맛집’ 38곳 선정

신규 2곳 · 재지정 36곳 등

군산시가 군산맛집 38곳을 선정 발표하며 음식문화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소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음식 관광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군산맛집’ 38곳(신규 2, 재지정 36) 선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맛집은 지난 3월 대상업소 신청 및 추천을 시작으로 1차 서류 사전심 의와 2차 군산맛집 발굴·육성위원회의 현지평가를 통해 음식의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85점 이상 획득한 38개소에 대해 최종 지정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맛집은 남원읍 담골추어탕(수송동 소재), 전주우육집 및 관객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군산시는 1월 녹화 이후로 공연연기를 해왔지만 개최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성원 합입어 방역에 민간의 준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6월 녹화는 28일 1회차 오후 1시30분, 2회차는 오후 7시30분에 진행되며, 17일 오전 10



료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및 음식홍보책자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오숙자 위생행정과장은 “음식관광문화가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외식업소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군산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늘리고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기자

‘전국 TOP10 가요쇼’ 군산서 열린다

‘한 칸 띄워 앉기 좌석제’ 도입... 28일 군산 예술의전당

최근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트로트 공연 ‘전국 TOP10 가요쇼’가 오는 28일에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온라인 예매만 진행하며, 1인 1석 온라인 예약 및 ‘한 칸 띄워 앉기 좌석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관객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군산시는 1월 녹화 이후로 공연연기를 해왔지만 개최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성원 합입어 방역에 민간의 준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6월 녹화는 28일 1회차 오후 1시30분, 2회차는 오후 7시30분에 진행되며, 17일 오전 10

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하여 사전 예매만 실시한다. 본 행사는 정부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사전 온라인 예매지만 공연장 일원에 출입할 수 있고, 미수령 티켓에 대한 대기표를 별도로 배부하지 않는다.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전국 TOP10 가요쇼는 9개 민영방송이 주최하고 (주)전주방송에서 주관하는 성인가요 프로그램이다.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전국 TOP10 가요쇼는 9개 민영방송이 주최하고 (주)전주방송에서 주관하는 성인가요 프로그램으로, 9월까지 월 1회씩 진행되며, 전국 9개 민영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10시 55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민경찰연합회, 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 합류

익산시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익산시민경찰연합회가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단에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합회원 15명을 제3대 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에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제2대 명예감시원단은 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 회원 17명으로 구

성 운영 중이었으나 이번 익산시민경찰연합회원들이 추가 합류하며 총 32명으로 늘어났다.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단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각종 불법 유통광고물에 대한 현장 정비와 돌출간판, 벽면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의 불법적인 설치 사전방지를 위한 계도 등을 주 임무로 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예방주파수 비대면 발대식

군산시가 군장대학·군산대학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예방주파수 서포터즈 비대면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활동을 알렸다.

군산시보건소(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군장대학교·군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중독예방 서포터즈 ‘예방주파수’를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발대식을 개최했다.

비대면 발대식은 약 1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중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포터즈 활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중독예방 서포터즈 ‘예방주파수’는 카카오톡 및 SNS 홍보 등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중독 없는 군산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기자

익산시 14개 보건지소

코로나 생활방역 홍보

익산시 14개 보건지소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해 면역력이 약한 취약 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보건지소의 일반 업무는 재개되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내소 환자 및 방문 보건 대상자에 게 전화로 건강상담을 실시하며 생활방역 수칙과 함께 폭염 예방법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생활방역 5대수칙은 아픈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두기,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지키고, 식사는 가볍게,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예방 9대 수칙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고열환, 당뇨, 천식 등 기저질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취약해 감염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이들에 대한 차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탄력

익산시·시공사 다툼 일단락

익산 일반산단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둘러싼 익산시와 시공사의 소송이 원만한 해결과 공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계획된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높여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길 계획이다.

익산 일반산단단지 진입도로 시공사인 대립산업(주) 관계자는 지난 15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면담을 갖고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공사대금 요구 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

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시는 대립산업(주)에서 1~5차 분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요구소송을 접수해 올해 4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진행하던 과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립산업(주)은 최근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고 원만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익산시와 대립산업(주)은 공사 과정에서 2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이와는 별개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체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시는 올해 사업비중 국비 43억원 확보에 이어 2021년 준공을 위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정치권과 공조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시공사와 함께 안전 및 품질 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기업의 물류·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산단 활성화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연결되는 도로확충으로 교통편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